

## 10 베토벤

베토벤 음악당 앞

뒤셀도르프 예술가 클라우스 카머리히는 카알 요제프 스틸러가 1819년 제작한 베토벤 흉상을 근거로 1986년 뛰어난 베토벤 초상화를 완성한 후, 이를 신축 베토벤 연주회장에 기증하였다. 이로서 본 시는 베토벤 도시라는 확고한 상징물을 가지게 되었다.

남쪽으로는 농장이 보인다. 베토벤이 본에 살았던 당시에 이미 이 별장은 결혼지참금으로 리페백작의 수증으로 넘어갔다.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이 건물내 북쪽편에 위치하고 있는 홀에서는 음악회가 자주 개최된다.

작성일자 : 2006년 4월 13일



### Touristische Informationen (위치 및 연락처):

위치 : Bonn Information, Windeckstraße 1, 53103 Bonn

전화 : 0228/77 50 00, 팩스 : 0228/77 50 77

이메일 : bonninformation@bonn.de

발행인: 본 시장, 본 시 홍보처

베토벤을 위한 시민단체, 라인바흐 유리공예학교, 시티 파크만 유한책임회사 및 본시 전기수도공사 직업교육훈련원 등의 지원으로 동 자료를 발행함.

작성일자 : 2006년 4월 13일

###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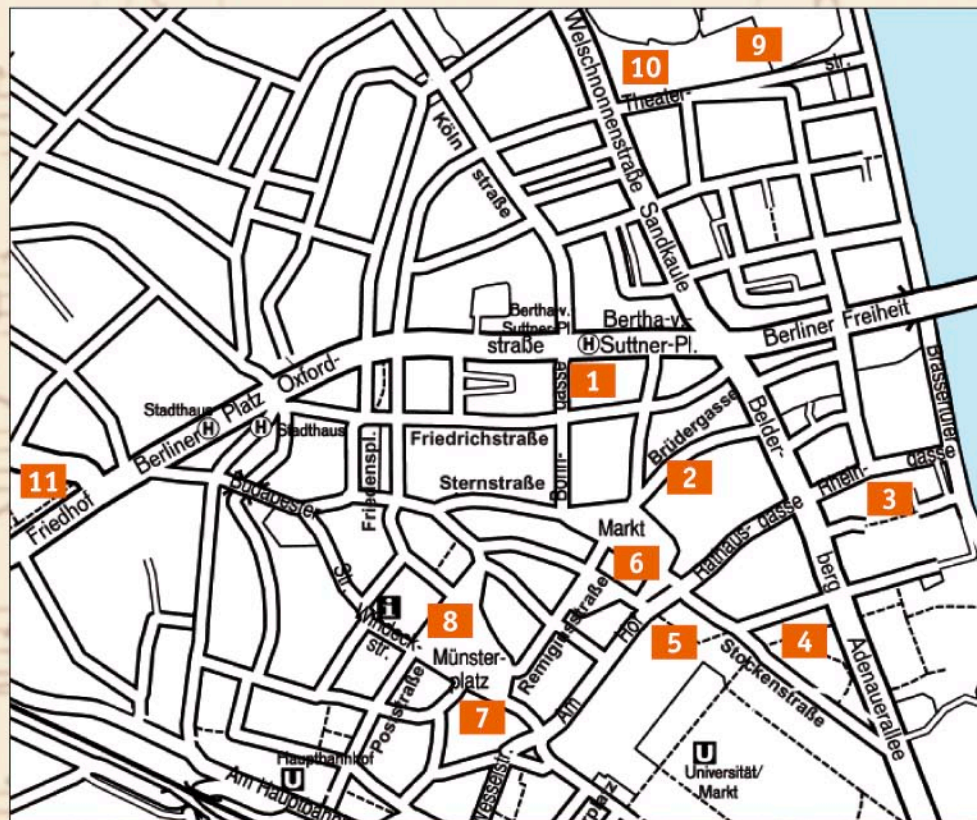
ehemals Residenz der Kölner Kurfürsten  
Die beiden „Bönnschen Ballstücke“ des Hofmalers François Rousseau zeigen das um 1750 erbaute Hoftheater, heute Hösasaal 17 neben dem Koblenzer Tor. Das kurfürstliche Orchester ist zweigeteilt dargestellt. Hier musizierten schon Ludwig van Beethovens gleichnamiger Großvater, sein Vater Johann und er selbst.

Once Residence of the Prince-Electors of Cologne  
The two "Bönnschen Ballstücke" ("Works on a court festivities in Bonn"), painted by court artist François Rousseau depict the court theatre, which was built around 1750, today lecture room 17, next to the Koblenzer Tor. The orchestra of the electoral princes is shown divided into two sections. Beethoven's identically named grandfather, his father Johann and Ludwig himself all worked here as musicians.



„안내지도 보는 방법“

„예 : 대학“



## 11 구 시립묘지

보르하임어 거리

1715년 요셉 클레멘스 선제후의 지시에 의해 „일반 시민, 여행자 및 군인들“을 위한 무덤으로 시 외곽에 구 시립묘지가 설치되었다. 이후 1787년 공포된 선제후령에 의해 구 시립묘지가 성당묘지로 바뀌었다. 이 성당묘지에 안장된 이들은 모두가 19세기 독일대학도시 중의 하나였던 본 시의 유명한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구 시립묘지는 이곳에 안장된 이들 유명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곳 구 시립묘지에 설치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더욱 유명하다. 구 시립묘지에 안장된 베토벤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레나 베토벤의 묘지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다. 구 시립묘지에서 가장 오래된 묘지 중의 하나였던 베토벤의 어머니 묘지는 1826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었다. 1932년이 되어서야 이 묘지가 베토벤의 어머니 묘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본 시 소재 베토벤 박물관은 이 묘자리를 구입하여, 베토벤의 편지글귀 한 구절을 새긴 묘비석을 세워 사자를 위로하였다. 이 묘자리는 1970년도에 다시 새로 단장되었다.

## 12 레두프

바드고데스베르크 큐어푸르스텐 알레

무용 및 연극관을 가진 레두프 건물은 막스 프란츠 선제후 통치절 본 시에 최초로 건축된 우아한 고전건축물이다. 프란츠 선제후는 바드고데스베르크에 소재한 온천지를 선진할 목적으로 레두프 건물을 신축하도록 명하였다. 이 건물에서 젊은 베토벤은 하이든을 앞에 두고 연주하였다.

## 13 리페스 궁전

오버카셀

피니히틴터러 거리

선제후는 본 시내에 있는 궁전 이외에도 본 시 외곽에 별장을 마련하였다. 후일에 „리페스 별장“이라 명명된 오버카셀에 위치한 이 농장은 후에 쾰른 세습귀족인 마이너츠하겐 가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18세기 중엽에 마이너츠하겐 가문은 유명 바로크 건축가 요한 콘라드 슐라온으로 하여금 이 농장을 여름별장으로 개축하도록 하였다. 넓은 주차장 및 정원을 가진 여름별장은 영주저택 및 2채의 별채로 이루어져 있다. 이 2채의 별채건물은 오른쪽이 모서리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건설되었다.

# 베토벤-관광코스

„베토벤의 흔적을 찾아서“



www.bonn.de

BONN

Die Stadt





로마시대 에 „카스프라 보넨시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던 본 시는 16세기 이후부터는 쾰른 대주교 겸 선제후의 궁전도시였다. 요셉 클레멘스 선제후와 클레멘스 아우구스트 선제후는 왕성과 로코코식 시정사를 짓도록 함으로서 본 시를 새로운 도시로 변모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수많은 성당들과 귀족들의 대저택이 잇달아 들어섬으로서 본은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성을 둘러싼 귀족문화로 인해 본시는 귀족도시가 되었다. 당시 1만명의 시민이 살았던 본 시에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1770년 12월 16일 또는 17일날 탄생하였다. 선제후 도시인 본에서 베토벤의 젊은 시절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314,000명이 살고 있는 베토벤 탄생도시 본을 저절로 모두 둘러보게 된다(관광코스 12번째 -연회장- 와 관광코스13번째 -리베스 궁전- 은 본 시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역인 바도그레스베르크 보일에 위치하고 있다.).



### 1 베토벤 생가 본가세 20번지

본가세 20번지에 위치한 위대한 작곡가의 생가는 바로크 시대 본 시의 일반 시민의 전형적인 가옥양식을 띠고 있다. 베토벤의 생가는 길가에 면한 앞쪽면은 웅장하게 지어졌고, 정원쪽을 바라보고 있는 집의 뒤쪽은 아주 낮고 협소하게 건축되었다. 1767년에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집의 뒤쪽 1층으로 베토벤의 양친이 이사를 하였고, 이 집 다락방에서 베토벤이 출생하였다. 본가세에 있는 베토벤의 생가에서 베토벤가족은 7년간 더 거주하다 이사를 하였는데, 이 후 본 시내에서 5번을 더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베토벤이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곳은 이곳 생가가 유일하다.

### 2 성 레미기우스 성당 부뤼더가세

본 시에서 고딕양식으로 건축된 건축물중 유일하게 잔존하는 성 레미기우스 성당은 과거에 미노리엔 수도원 성당이였으며, 1276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14세기 말엽에 완공되었다. 이 성당은 베텔파(탁발수교회)의 엄격한 양식을 따라 지은 전통적인 베텔식 성당이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10세부터 매일 이 성당의 아침미사 때마다 오르간 반주를 하였다. 베토벤이 연주하던 1748년 제작된 오르간은 아주 유명한 쾰른 오르간제작자 루드비히 피니히의 작품으로 다른 오르간과는 달리 아주 섬세한 전면부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이 오르간은 제2차세계대전 중에 건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 성당 좌측 회당에는 성수를 담아 놓은 세례반이 있는데, 이 곳 세례반의 성수로 1770년 12월 17일에 베토벤이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반은 1806년에 철거된 당시 교구 본당 성당이었던 성 레미기우스성당에 놓여 있던 것으로서, 현재 교구 본당성당의 기능은 성인 레미기우스의 권한을 물려 받은 클로스터 성당이 맡고 있다.

### 3 라이가세 24번지

1776년 베토벤 일가가 세들어 살았던 가옥에는 이미 베토벤과 같은 이름을 가졌던 베토벤의 조부(루드비히 반 베토벤)가 이미 살았던 적이 있었다. 제빵업자 고트프리트 피셔씨의 소유인 이 집은 삼각형 모양의 합각지붕을 가진 근사한 가옥이었다. 이 집에서 베토벤의 동생인 니콜라우스 요한이 1776년에 태어났다. 이 집과 차후에 다시 이사를 가는 벤젤가세 25번지에서 젊은 베토벤은 자신의 청년기를 보냈다. 베토벤 가족은 이 집에서 2번이나 이사를 한 후 다시 재입주를 하면서 1785년 까지 살았다.

### 4 본 대학 (쾰른 선제후의 궁전) 레기나 파식스 거리

이 궁전은 쾰른 선제후의 궁정활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통치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곳은 예술관에 속하는 궁정연극관이다. 이 예술관에서는 연극 및 오페라 초연뿐만 아니라 음악회 및 무도회가 열리곤 하였다. 이 궁전은 베토벤이 약 7살이었던 1777년에 발생한 큰 화재로 일부 건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다.

### 5 궁정성당 안 데어 슬로스키르헤

건축가 요한 하인리히 로스가 마지막 정열을 불사른 건축물로서, 프랑스 루이16세 시대의 전통적인 조형건축양식을 따랐다. 선제후는 자신의 침실에 이 궁전성당의 2층으로 곧바로 출입할 수 있는 전용문을 가지고 있었다. 2층은 3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쪽면에 있는 2번째 벽면에는 성가대석과 오르간이 놓여 있었는데, 이 오르간으로 베토벤은 자신의

스승인 궁정오르간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크리스티안 고트롭 네페에게서 음악교육을 사사받았다. 또한 베토벤이 14세에 정식으로 „선제후-왕궁의 궁정 오르간 연주자“로서 임명받아 공무원 봉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던 최초의 근무처이기도 하였다.

### 6 여관 켄어가르텐

마크트 11번지 / 알 알텐 라트하우스

시청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로서 시장이 열리는 길고 협소한 광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있다. 선제후는 1737년 4월 24일 시청건물 기공식에 참석하여 직접 초석을 놓았다. 궁정건축가인 미샤엘 네벨리가 시청건물을 설계함으로써 완전히 궁정건축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되었다. 시청건물에서 인상적인 것은 도금으로 장식된 계단 난간과 시청 입구계단을 누구나 올라갈 수 있도록 아무 장애물도 설치하지 않은 점이다. 시청건물과 엮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현재 사진현상소가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과거에는 여관겸 선술집인 „켄어가르텐“이었다. 이 여관겸 선술집은 궁정요리의 미망인인 안나 마리아 코흐가 운영하였다. 안나 마리아 코흐는 문학적,음악적 생의 대부분을 본에서 보낸 유명한 예술가이다. 그녀는 여관업을 운영하면서 서점도 함께 운영하였는데, 수많은 본의 지식인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많은 교류를 하였다. „아름다운 딸 바바라, 바베테“ 라고 불리었던 이 미망인은 밤에 열리는 토론회에서 항상 열광적인 승배를 받았다. 이 미망인도 젊은 베토벤을 높이 평가하였다. 베토벤의 친구들이 베토벤의 오스트리아 비인유학을 축하하기 위해, 이 여관 켄어가르텐 선술집에서 환영회를 연 다음, 작별기념으로 비인유학의 장도를 축하하는 방명록을 베토벤에게 증정하였다. 이 방명록에 있는 글귀 중 가장 유명한 문구는 페르디난드 발트슈타인 백작이 베토벤이 미래에 모짜르트와 하이든에 버금가는 작곡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암시를 한 글귀로서 „...당신은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하이든의 기교에서 흘러 나오는 모차르트의 영혼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쓴 글이다. 이 페르디난드 발트슈타인 백작의 문구는 베토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 6 본 대성당 /본 대성당 부속학교 윈스터 광장

본 대성당 -과거 성 까시우스 및 플로렌티우스 수도회 소속 성당-은 라인란트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건축물이다. 로마시대 후기에 초석이 놓여진 본 대성당은 기독교의 부흥을 지켜본 산 중인데다, 3세기 로마시대 공동묘지 한켠에 설치한 -현재 지하 남골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망자 위령소 -셀라 메모리아나- 가 본 대성당의 기원이다. 얼마후 이 위령소에 예배장소인 본당만 있는 조그만 성당을 건축하였고, 테베지역에 주둔한 „까시우스 및 플로렌스“ 로마군단 소속 군인순교자들을 기려 „까시우스 및 플로렌스 성당“이라 칭하였다. 본 대성당이 - „11세기에 건축된 구 대성당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 로마시대 건축양식을 함께 갖추게 된 것은 1153년이었으며, 이는 순전히 게하르트 폰 아래 주교신부님 덕분이다. 또 폰 아래 주교신부님은 라인란트지방에서 유일한 로마시대 건축물인 대성당내 회랑의 보존을

주장하는 대성당 후원협회를 창설하였다. 화려한 바로크양식으로 제작된 오르간은 대성당 서쪽회랑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대성당 오르간 연주자였던 청년 베토벤은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오르간으로 연주를 하였다. 베토벤은 라트하우스가세 거리에 위치한 로페르츠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성 까시우스 수도회 소속 공립 라틴어학교를 다녔다. 이 페르디난드 발트슈타인 백작의 문구는 베토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 8 브로우닝 저택 /베토벤 기념동상 드라이엑크 8번지 윈스터광장

오늘날 우체국으로 사용하는 바로크 양식의 궁정건물과 베토벤 탄생도시인 본 시가 윈스터광장에 건립한 베토벤 기념동상은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제공한다. 라디막허 수도원장의 사택으로 건축한 동 궁정건물은 1830년에 퓨루스텐베르크 귀족 가문의 소유가 되었다. 베토벤 기념동상은 드레스덴 조각가인 에른스트 율리우스 헤벨이 조각하였는데, 베토벤이 무언가 예술적 영감을 얻은 듯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다. 이 기념동상의 받침대에는 - 환상음악, 감동적인 음악, 교향악 및 영감적인 음악- 등 음악의 4가지 종류를 비유적인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동상의 초석에는 제9번 교향곡 및 장엄미사곡 초판본이 조각되어 있다. 베토벤 탄생 75주년이었던1845년 8월 22일에 마침내 제1회 베토벤 음악축제가 3일간 개최되었다. 초청된 저명인사들 중에는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빌헬름2세 국왕부부, 빅토리아 영국여왕 및 부군 알버트공 등이 있었는데, 이들 저명인사들은 퓨루스텐베르크-궁전 창문난간에서 제1회 베토벤 음악축제를 감상하였다.

현재 백화점(Kaufhof)이 들어선 자리에는, 브로우닝 가문의 저택이 있었다. 독일기사단 소속 기사였던 브로우닝 추밀고문관(호프라트 폰 브로우닝)은 궁전의 화재시에 사망하였다. 브로우닝의 미망인 헬레네와 4명의 자녀는 „종종 방황하던“ 젊은 청년 베토벤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선사해 주었다.

### 9 베토벤 연주회장 왓시블라이헤 거리

1959년 9월 건축가 지그프리트 볼스케의 도면에 따라 베토벤 연주회장이 신축됨으로써, 본 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기적인 음악축제 도시로 변모하였다. 파울 힌데미스는 베토벤 연주회장 신축 개장식에서 자작곡인 „노빌리시마 비지오네(Nobilissima visione)“를 초연하였다. 현재의 베토벤 연주회장은 3번째 건축한 건물이다. 첫번째 베토벤 연주회장은 1845년에 제1회 베토벤 음악축제를 위해 건설되었었다.